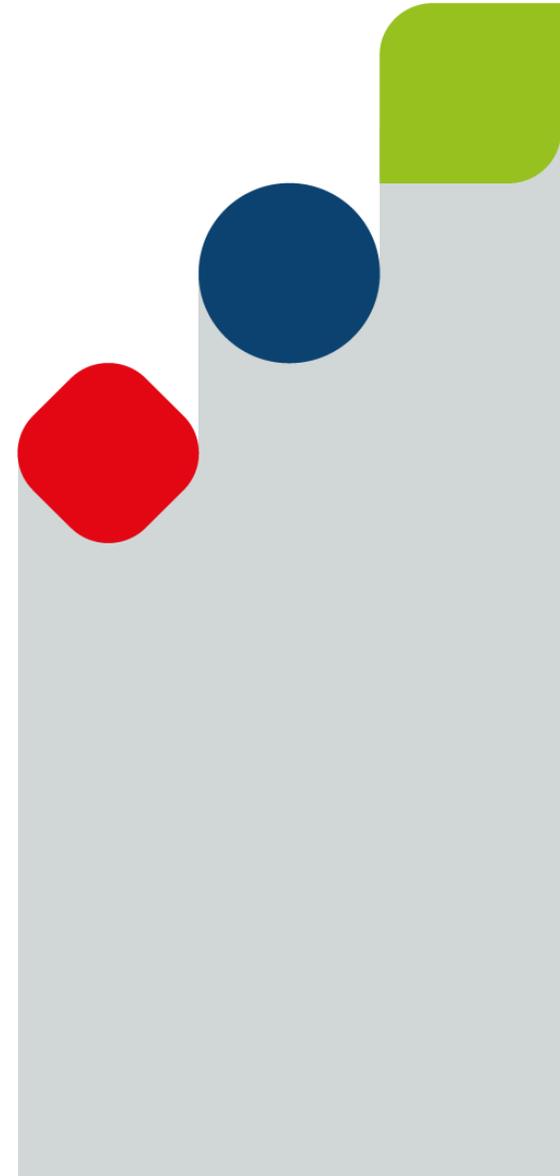


# 롯데케미칼 CEO IR DAY (CIO간담회)

2022. 3. 31





본 자료에는 장래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,  
현시점에 경영진에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가정한 사항들을 기초한 것이나,  
과거가 아닌 미래와 관련된 사항들로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,  
이로 인해 실제 미래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 
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장래예측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/보충할 의무를  
부담하지 않습니다.

또한 어떤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 
증빙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<b>중장기 전략</b>		석유화학 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ESG 성장 전략
<b>신사업</b>	<b>전략</b>	수소 / 배터리 / 리사이클 사업 전략 방향성
	<b>①수소 사업</b>	국내 수소 시장 전망 수소 사업 추진 로드맵, 당사 강점, 사업 목표
	<b>②배터리 소재</b>	롯데그룹 배터리 사업 Value Chain 글로벌 시장 전망 및 당사 사업 역량 / 전략 방향
	<b>③리사이클</b>	롯데 리사이클 사업 추진 로드맵
	<b>조직</b>	전담 조직 구축 통한 기업가치 제고, 전담 조직 구축(안)
<b>ESG 주요 추진사항</b>		2030 탄소감축 성장, 2050 Net-Zero 목표 탄소배출 Global Initiative 가입 - RE 100, 주주환원 정책 강화
<b>Financial Target</b>		중장기 Cash Flow 전망, 미래 현금 사용 계획 2030년 매출, 시총 Target, Vision 2030

# 석유화학 산업의 경영환경 변화



✓ '18년 롯데케미칼 Vision 2030 수립 후, 석유화학 산업 내 다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



## ESG에 대한 전방위적 관심 증대 및 대응 강화

규제 / 사회 환경 및 인식 변화로  
Sustainability 중요성 증대,  
업계 내 대응 필요성 증가



## 롯데케미칼 인접 영역 내 Specialty 기회 부각

글로벌 규제 변화,  
시장 내 역학관계 변화 등에 따라  
시장 매력도가 변화되는 영역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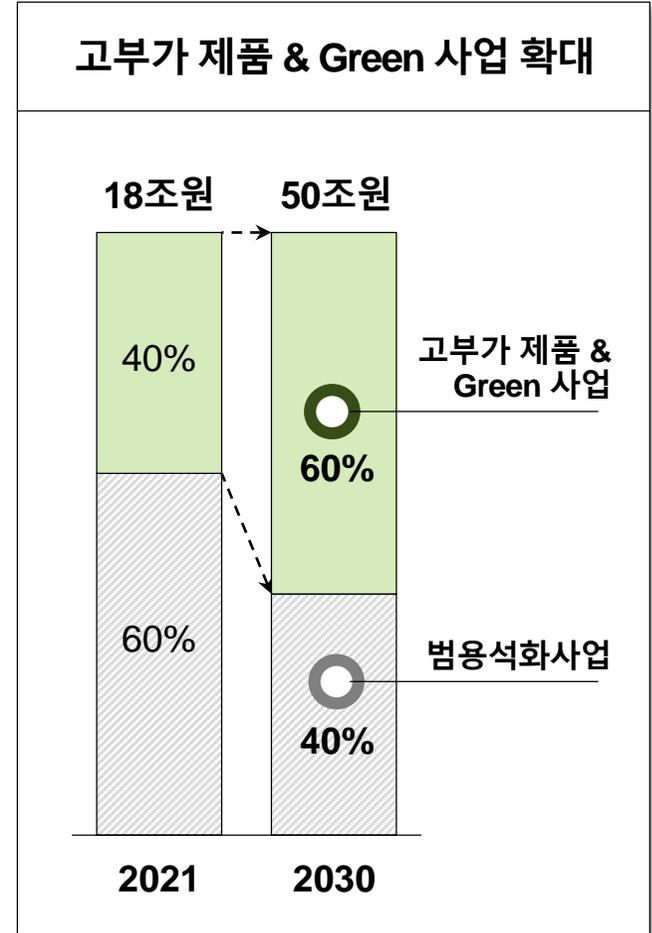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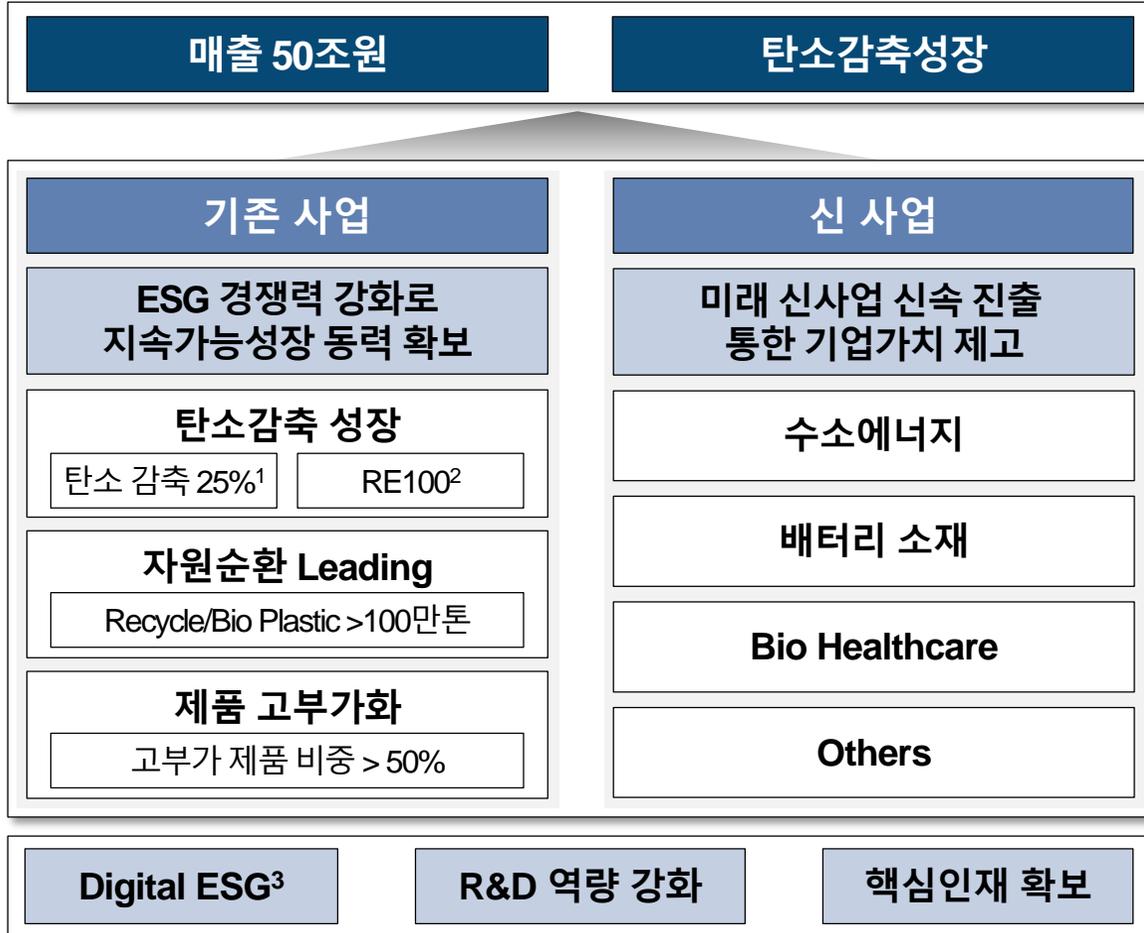
## 주주가치를 견인하는 Specialty 관심 증대

기존 석화사업 외  
High Valuation 사업 진출 필요성

# ESG 성장 전략



✓ 기존 사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Green 신사업 진출로 지속성장체계 구축, 기업가치 제고



Note : 1. '30년 배출량 기준, '19년 Peak (680만톤CO<sub>2</sub>) 대비 → 501만톤 CO<sub>2</sub> 목표; 2. 국내 석화사 중 RE 100 최초 가입 추진; 3. 공시/공급망 관리/친환경인증/탄소 감축/환경관리 system

# 수소 / 배터리 / 리사이클 사업 전략 방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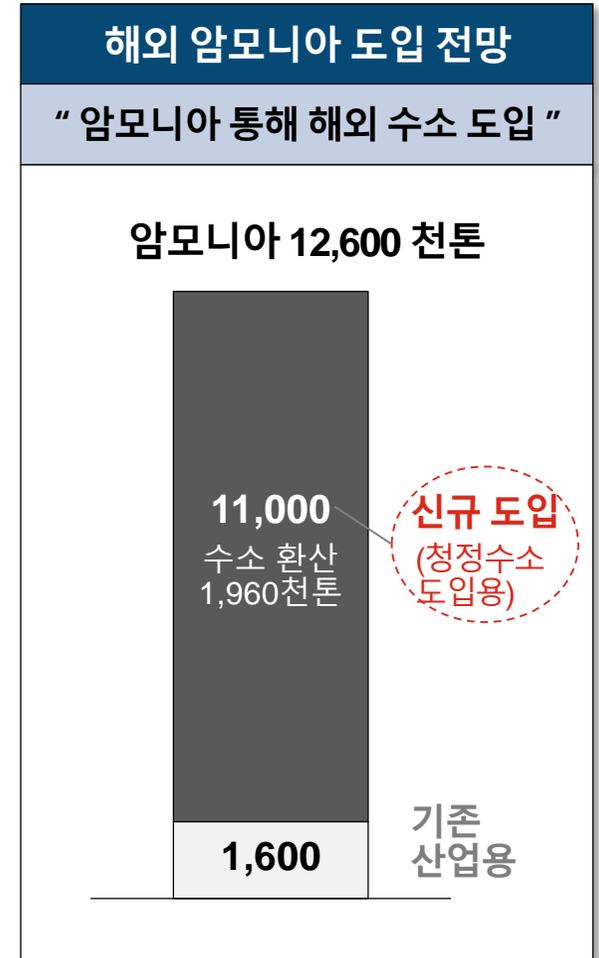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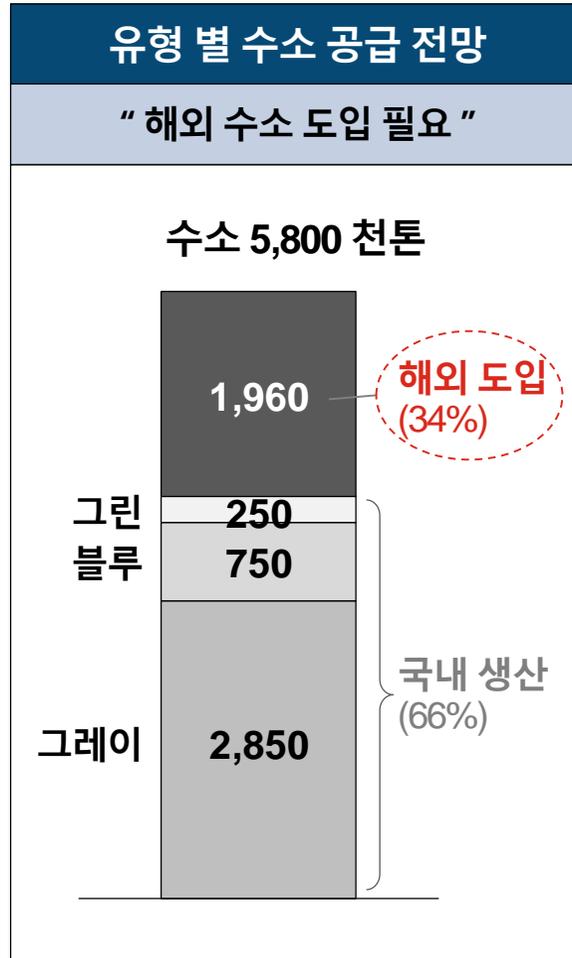
✓ ESG 트렌드에 대응하는 당사의 신사업 방향성 설정하고, 실행 전략 및 로드맵 구체화

	1 수소 에너지	2 배터리 소재	3 Recycle / Bio Plastic
<p><b>산업 현황</b></p>	<p>탄소중립 및 청정 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이거나 불확실성 공존</p>	<p>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함께 고성장하는 대규모, 고부가 시장</p>	<p>글로벌 규제 / 정책 확산으로 석화 선도사 대응 가시화 추세</p>
<p><b>당사 전략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외 암모니아 확보 / 인프라 구축 통한 주도권 확보</li> <li>• 공백기술 개발 / 수소 활용처 확대 통한 경쟁 우위 구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성장 시장 진출 통한 기 진입사업의 양적 확대</li> <li>• 고부가 소재사업 추가 진출 모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계적 / 화학적 Recycle, Bio plastic 제품의 CAPA 확대 및 기술 확보 통해 규제에 선제적 대응</li> </ul>
<p><b>2030 Goal</b></p>	<p>청정수소 120만톤, 매출 5조원 (누적투자 6조원)</p>	<p>국내 / 해외 시장 진출, 매출 5조원 (누적투자 4조원)</p>	<p>Recycle / Bio &gt; 100만톤, 매출 2조원 (누적투자 1조원)</p>

# [수소] 국내 수소 시장 전망 (~30년)



✓ 국내 수소 산업은 발전 수요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며, 당분간 암모니아가 중요한 역할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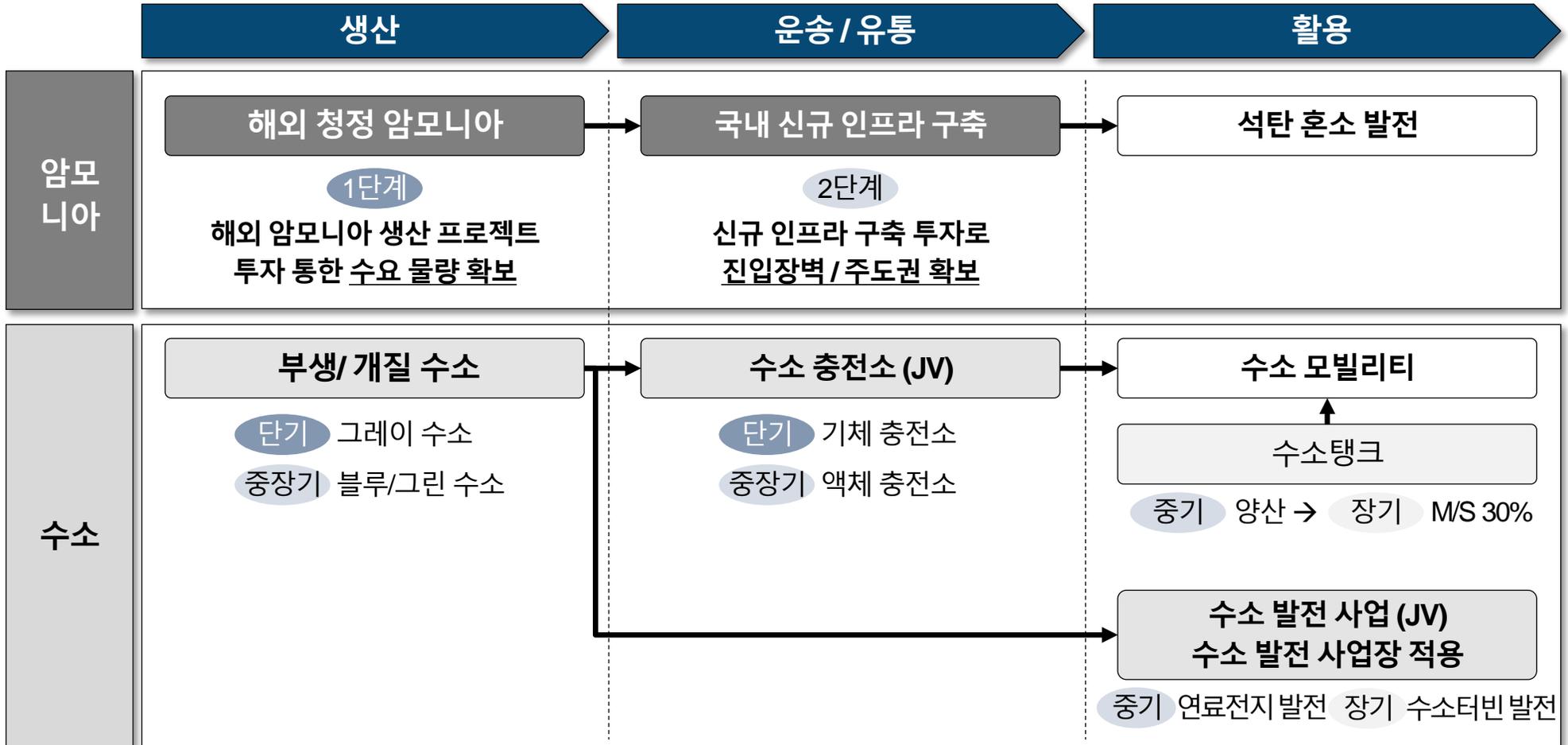


Note : 1. 비료, AN 원재료 용

# [수소] 롯데 수소 사업 추진 로드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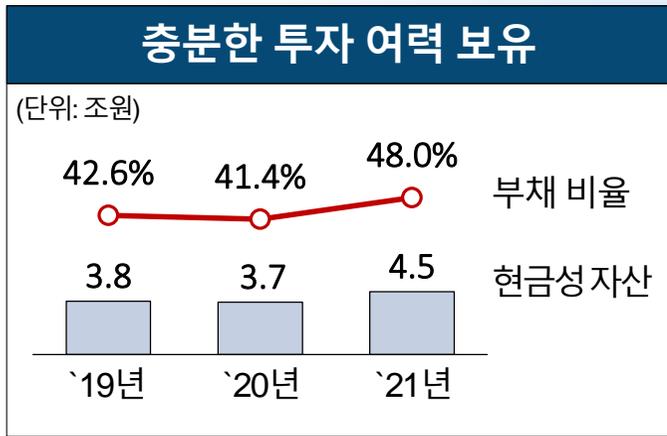
- ✓ 암모니아 - 해외 암모니아 생산 투자 /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 산업 주도권 확보
- ✓ 수소 -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 / 시장 확대를 위해, 유관 역량 보유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



# [수소] 롯데 수소 사업 강점



✓ 롯데는 부생수소 생산 통해 확보한 수소 역량 외 다양한 강점 존재



### 국내/외 주요 파트너와 네트워크

Air Liquide, SK 가스, SAMSUNG 삼성엔지니어링, posco, Hy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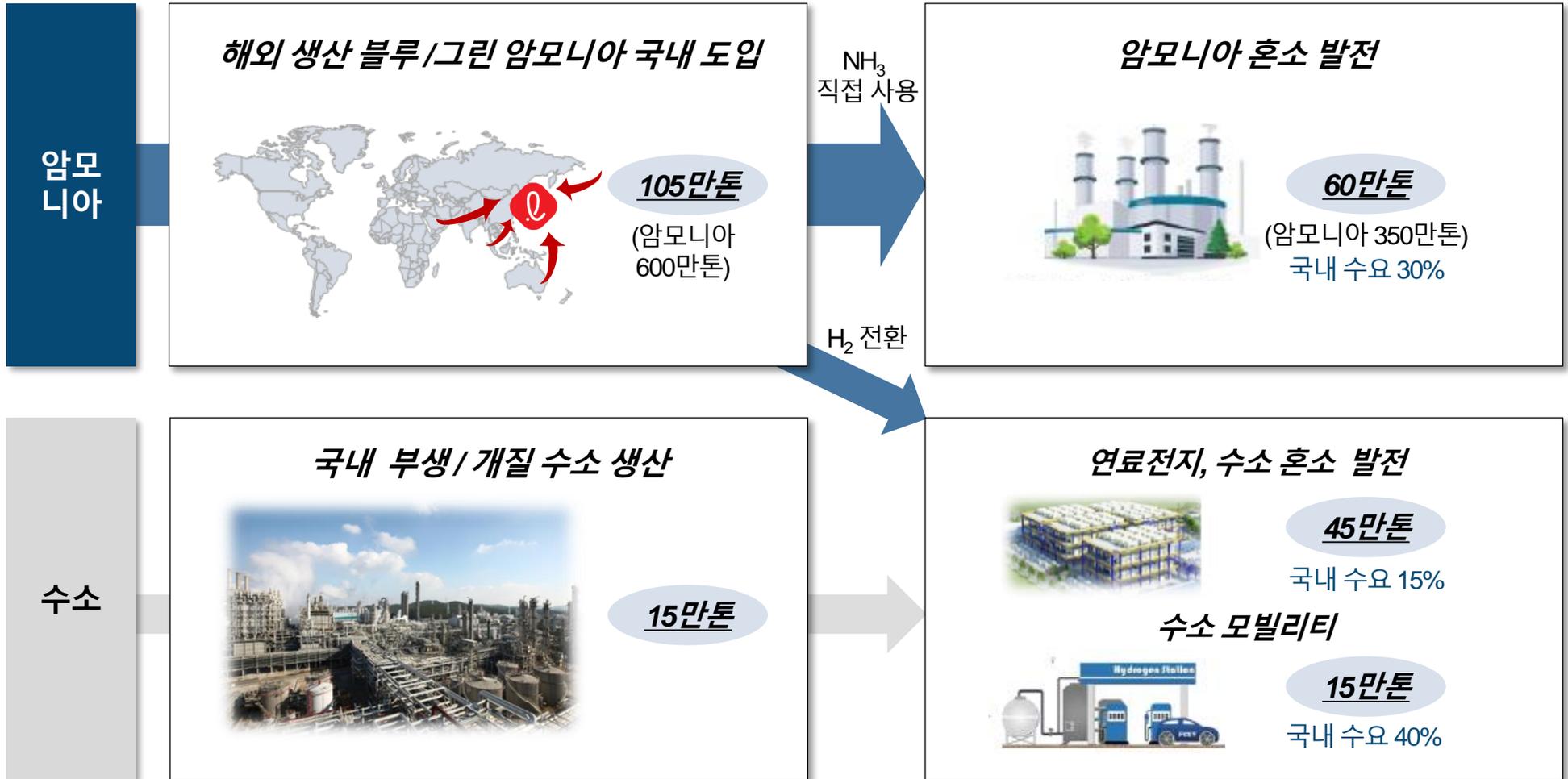
### 계열사 보유 수소 역량

롯데정밀화학, LOTTE | INEOS, 롯데글로벌로지스, 롯데렌탈

# [수소] 롯데 수소 사업 목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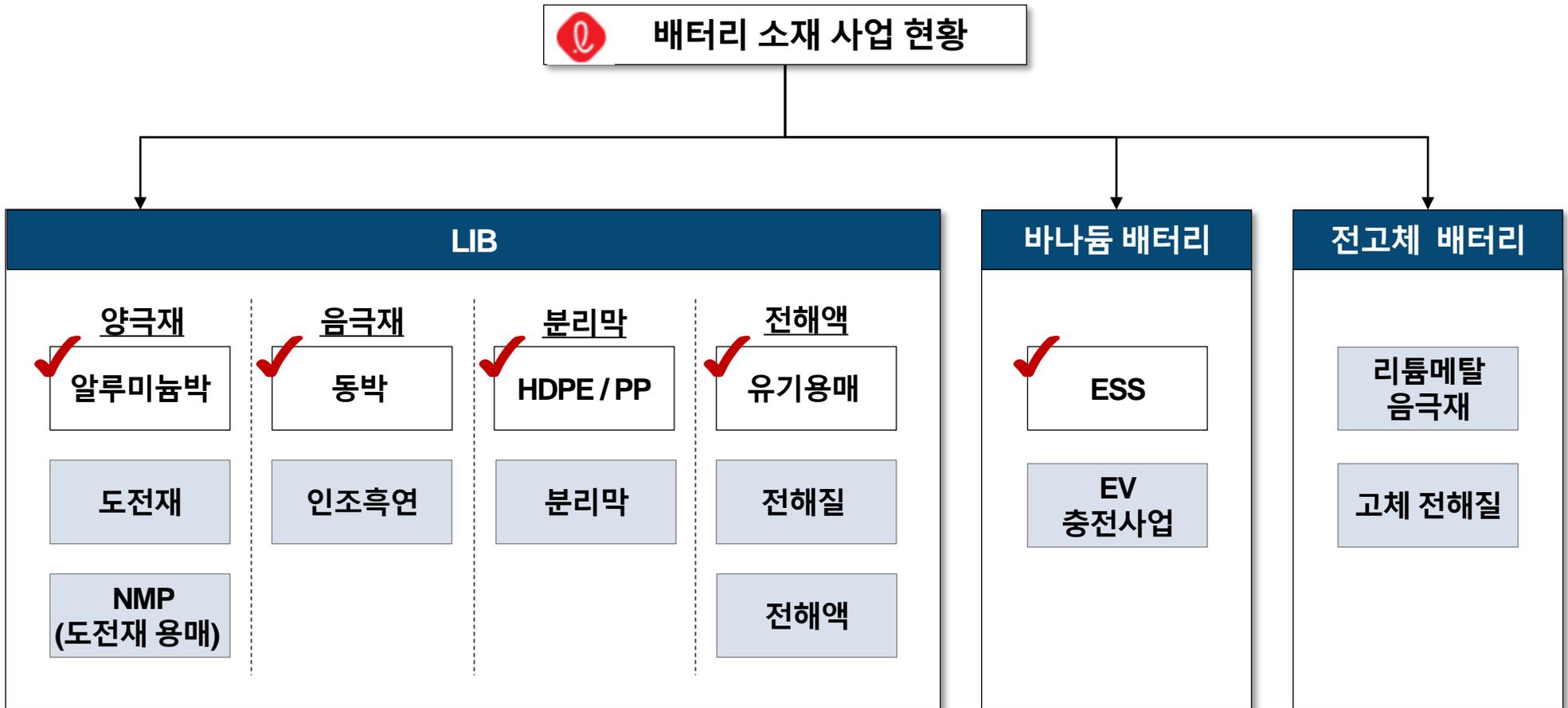
✓ 암모니아 형태의 수소 도입 및 혼소발전 활용 중심으로 2030년 120만톤의 청정수소 공급



# [배터리] 롯데그룹 배터리 사업 Value Chain



✓ 배터리 4대 소재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해외 진출 협업 논의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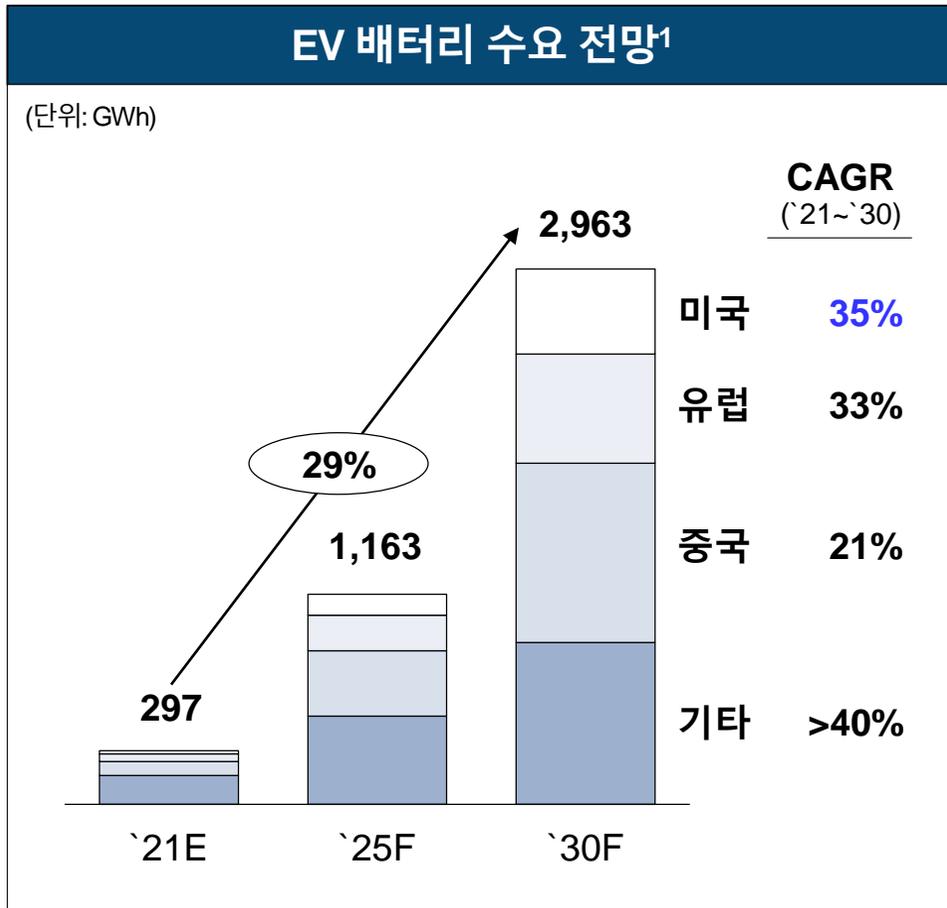


✓ 현재 진행 중인 사업   
   확장 가능 사업

# [배터리] 글로벌 시장 전망



- ✓ 친환경차 수요 증가, 신재생에너지 확대 따른 수요 성장 견인 → 향후 10년간 글로벌 수요 CAGR 30% 고성장
- ✓ 글로벌 3대 시장 중 향후 미국 중심 Supply 재편성 따른 Value Chain 진입 기회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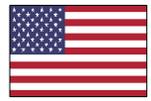
### 글로벌 3대 시장 현황

- 
  - 넓은 내수 시장 및 강력한 정부 지원 下, 최대 규모의 EV 배터리 시장 지위 지속
  - 내수 위주 공급망 형성된 폐쇄적 시장

---

- 
  - 제2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배터리 및 소재사 既 진출
  - 시장 성숙화 및 중국 기업의 진출 확대 중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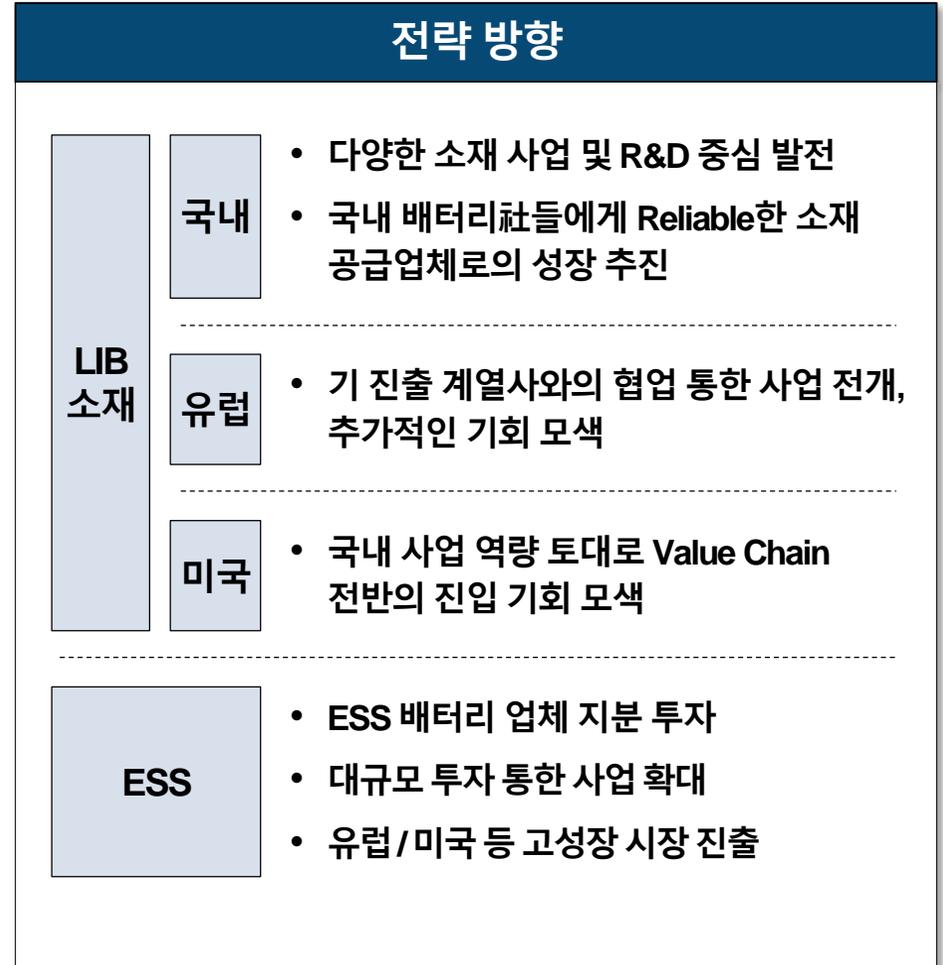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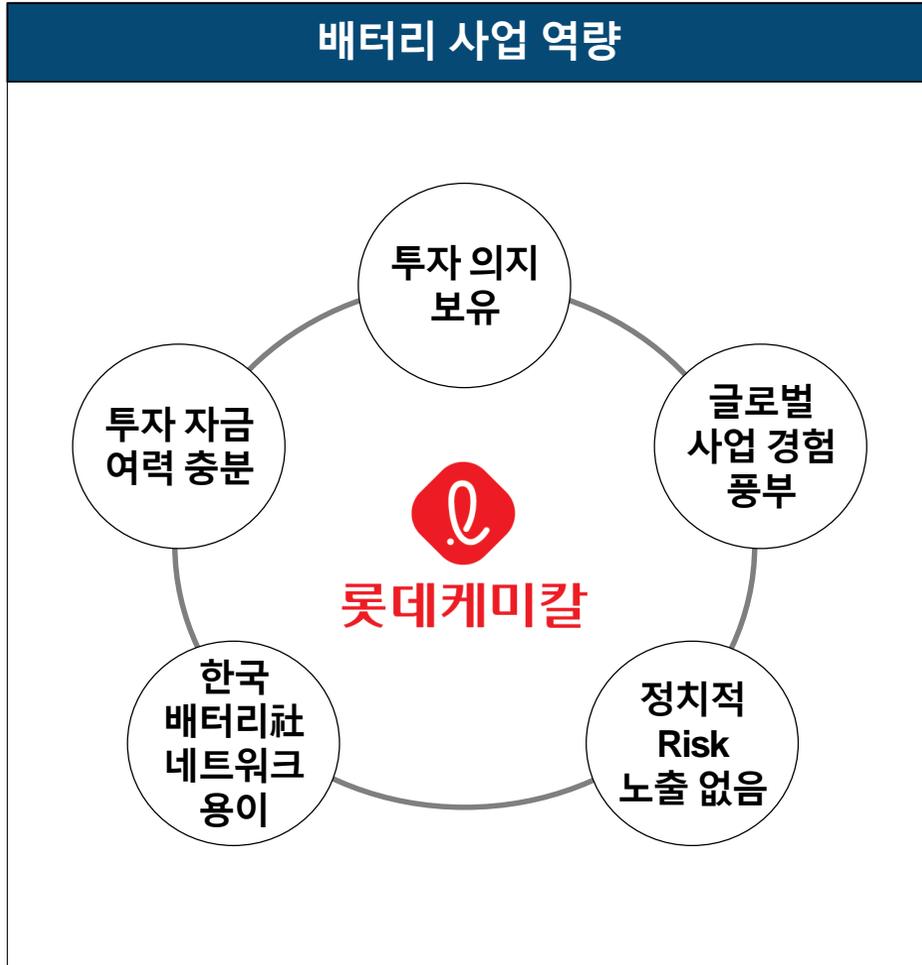
- 
  - 전기차 점유율 低, 배터리 수입 의존도 高 → 脫중국-美 중심 공급망 재편 시작
  -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에 유리한 상황

Note : 1. 업계 전망치 참고 내부 추정 (SNE Research, IHS, IEA, Wood Mackenzie), 배터리 생산량 비중 → '21년 중국 50% > 유럽 31% > 미국 14% (기타 5%), '30년 유럽 34% > 중국 30% > 미국 20% (기타 16%)

# [배터리] 롯데 배터리 사업 역량 및 전략 방향



✓ 롯데 강점 활용하여 국내 / 해외 사업 지속 확대



# [Recycle/BioPlastic] 롯데 리사이클 사업 추진 로드맵



✓ 2030 Recycle / Bio-Plastic 100만톤 이상 판매 목표 (리사이클 100만톤, Bio-Plastic 19만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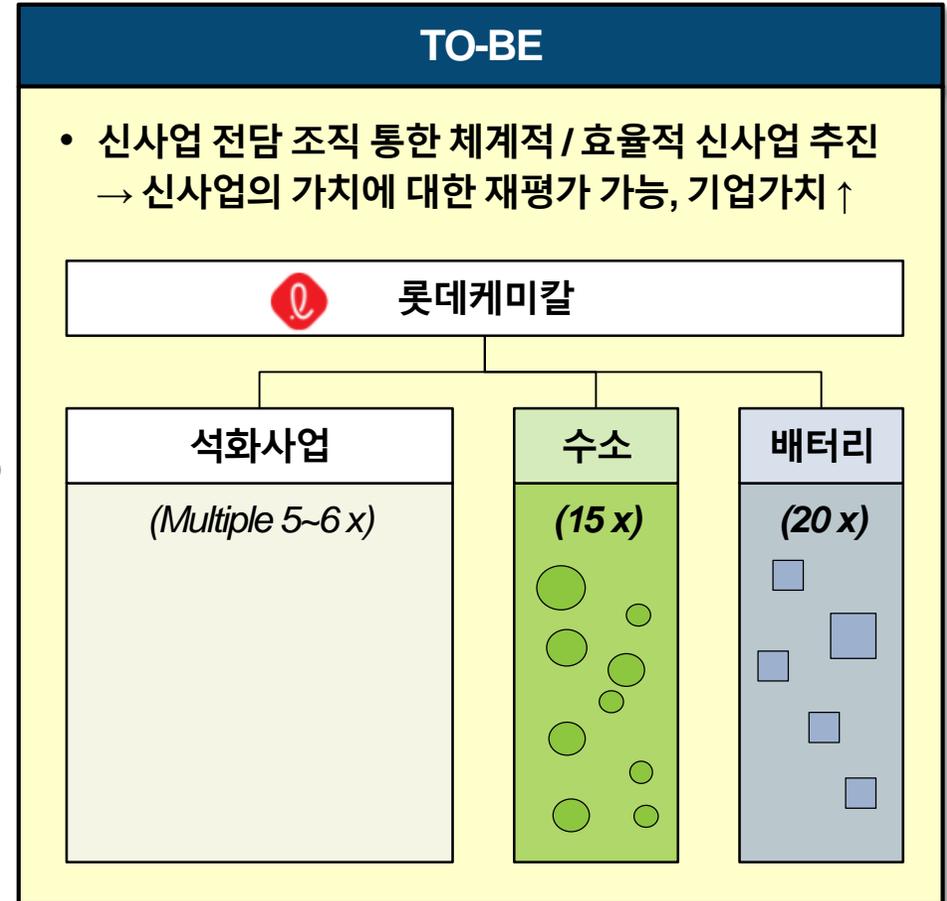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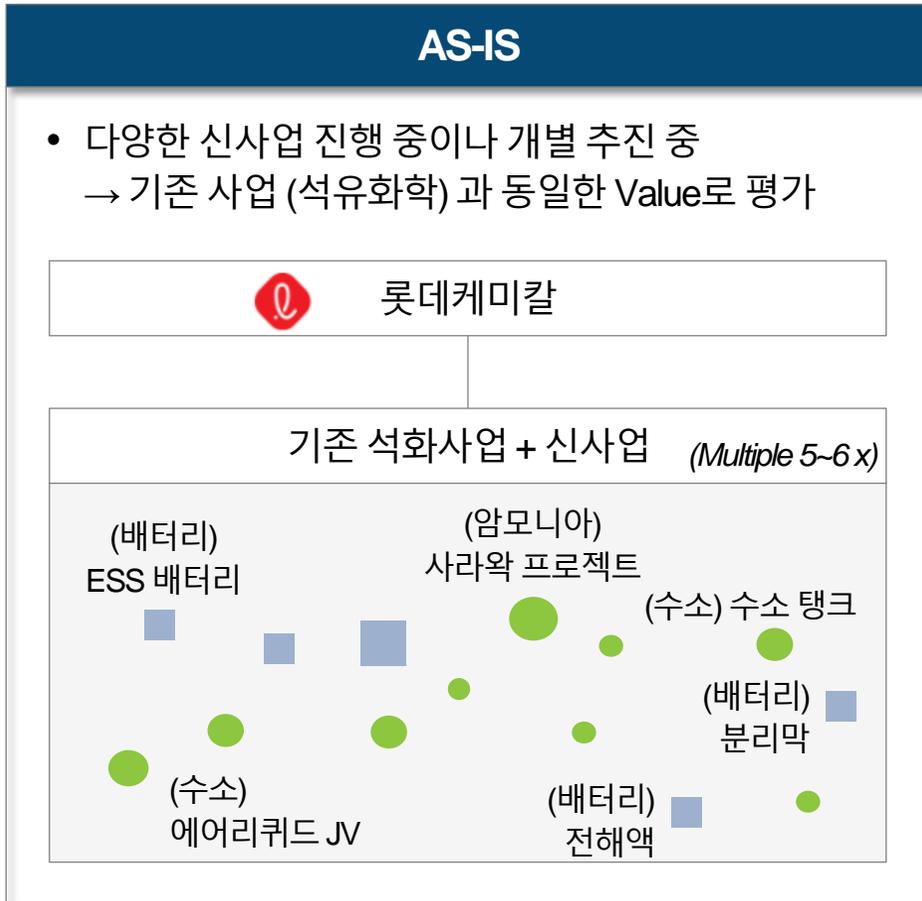
상용화 시점	현재	'24년~	'25년~
	<b>r-PC / ABS</b>	<b>r-PET</b>	<b>PE / PP, Bio-Plastic</b>
<b>당사 2030년 Recycle Target</b>	PC (170 KT) ABS (58 KT)	화학적 (340 KT) 기계적 (10 KT)	열분해 기반 Recycle (PE/PP외) (422 KT) Bio-Plastic (PET, PBAT외) (190 KT)
<b>관련 주요 정책</b>	가전, 자동차 등의 수요 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 존재	'30년까지 국내 패키징 플라스틱 내 재생플라스틱 30% 사용 의무화 <sup>1</sup>	열분해 상용화에 따른 적극적 규제 및 Recycle 어려운 소재 규제 가능성
<b>주요 고객 동향</b>	해외 전자, 자동차 업체 수요 증가 • Apple: '30년 내 외장 플라스틱의 100%를 재생플라스틱으로 전환	물/음료 소비재 업체 rPET 요구 증대 • Evian: '25년 내 전체 Bottle을 리사이클로 전환	주요 수요처 전반의 니즈 확산 • Ford: '30년 내 내/외장재 중 재생플라스틱 비중 ~20% 증대 외
<b>실행 전략</b>	기존 PCR <sup>2</sup> 제품 판매 확대	PET Recycle 100% (기계적/화학적 rPET 공장 건설 중)	기존 Bio-PET 확대 및 신규 Bio-Plastic 시장 진입, 열분해 기술 Seeding 투자

Note : 1. 플라스틱의 원재료 기준 ~30%의 리사이클 소재 들어갈 경우 재생 플라스틱으로 인정; 2. Post Consumer Recycled

# [신사업] 전담 조직 구축 통한 기업가치 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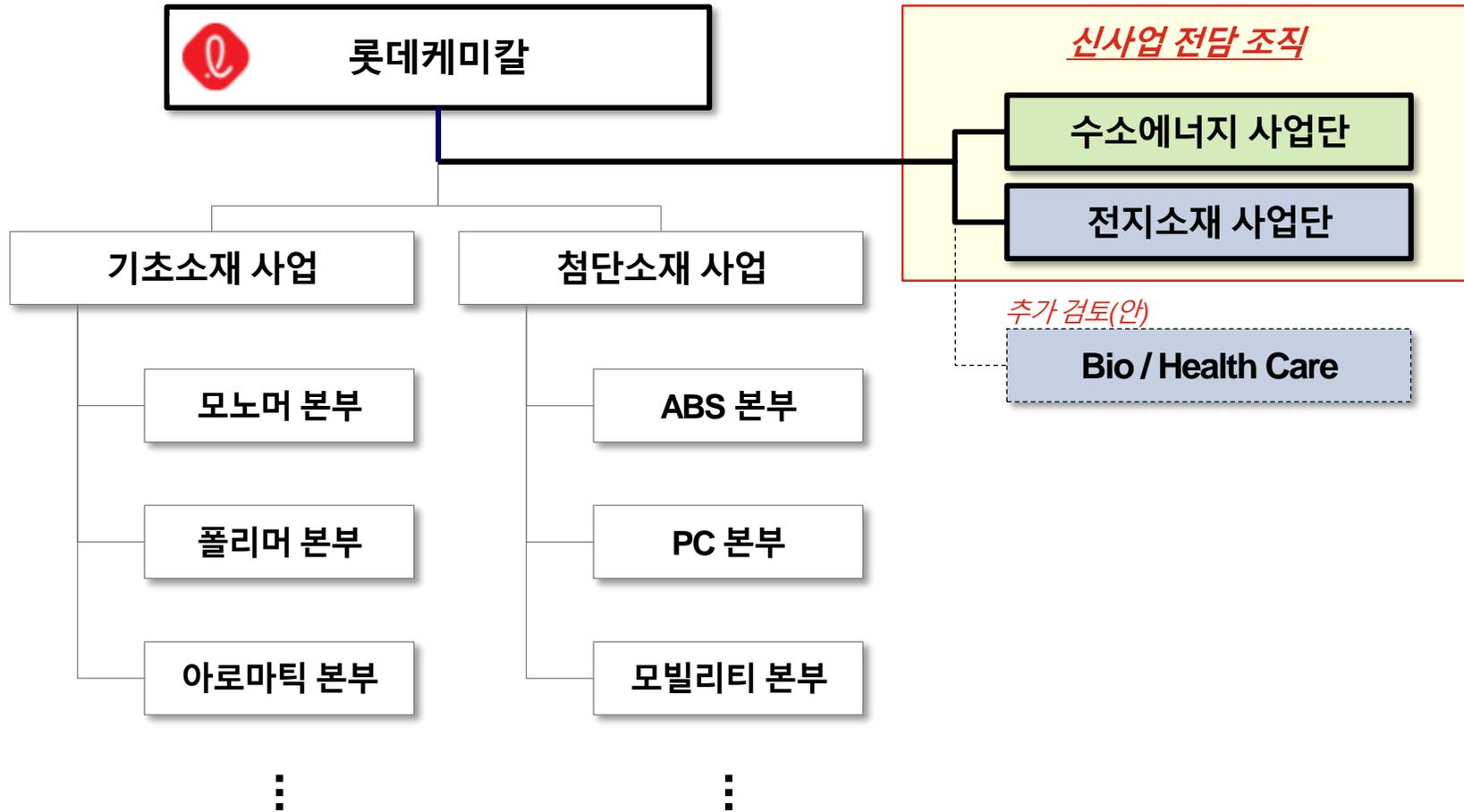
- ✓ 현재 개별 아이템 위주로 신사업 추진 중이나, 일관된 전략 실행 및 체계적 육성 위해 전담 조직 수립 추진  
→ 신사업에 대한 Revaluation 통해 기업가치 제고 효과 기대



# [신사업] 전담 조직 구축



- ✓ 신사업의 전략 일관성 확보 / 실행력 제고 위해 화학군 내 케미칼 산하 사업부 조직 신설
- 신사업의 전략적 / 체계적 육성 및 향후 자체 성장 기반 마련



# [ESG] 2030 탄소감축 성장, 2050 Net-Zero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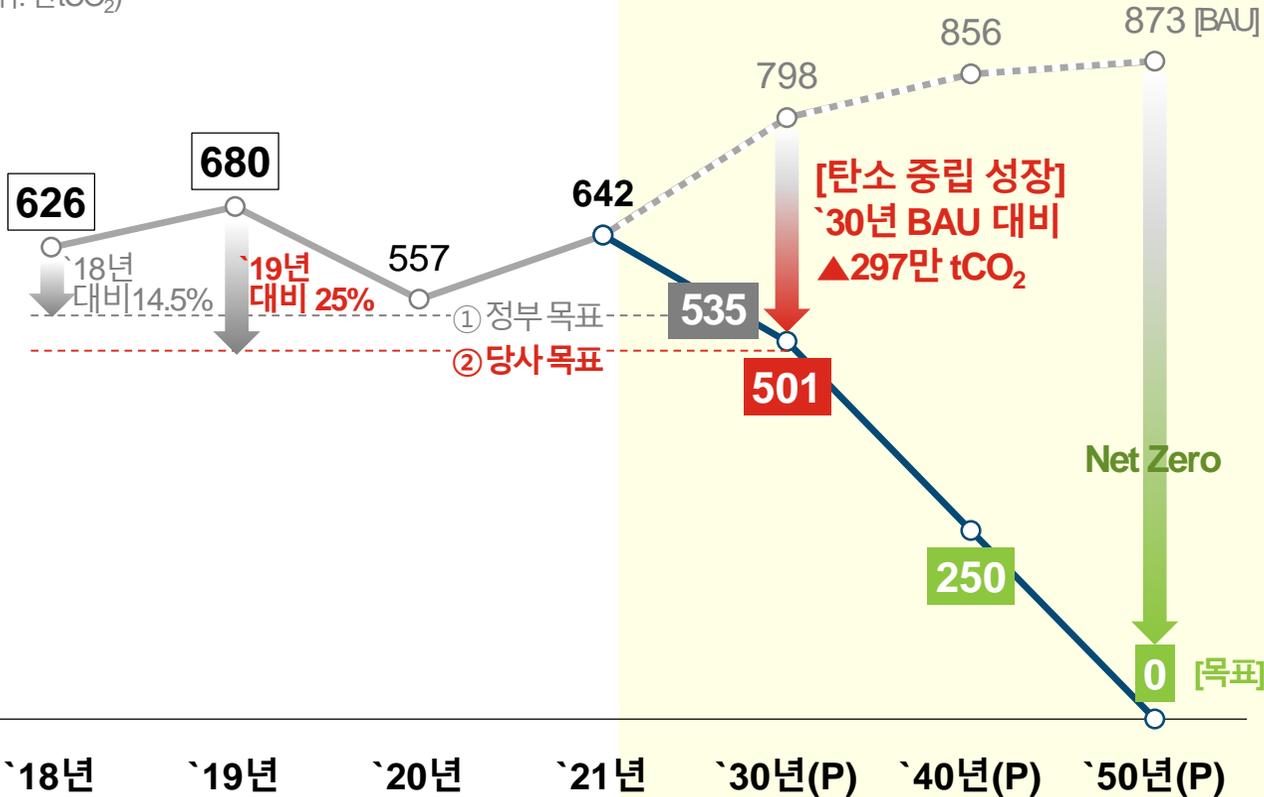


✓ 정부 목표<sup>1</sup> 대비 상향된 목표 수립 ('30년 목표: Peak`19년 대비 25% 감축)

단기 - 에너지 효율 개선, CCUS, 중장기 - 신재생에너지 도입 통해 `30년 BAU<sup>2</sup> 대비 297만톤 감축 계획

## 탄소 배출량 현황 / 감축 목표

(단위: 만tCO<sub>2</sub>)



## 감축 방안

-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, CCUS 적용 집중 → 신재생 에너지 점진적 도입 추진

(단위: 만tCO <sub>2</sub> )	'30년	'50년
에너지 효율 개선 <sup>3</sup>	39	330
원료 대체 외 <sup>4</sup>	28	43
CCUS 적용	50	261
신재생 에너지 외 <sup>5</sup>	180	239
<b>소계</b>	<b>297</b>	<b>873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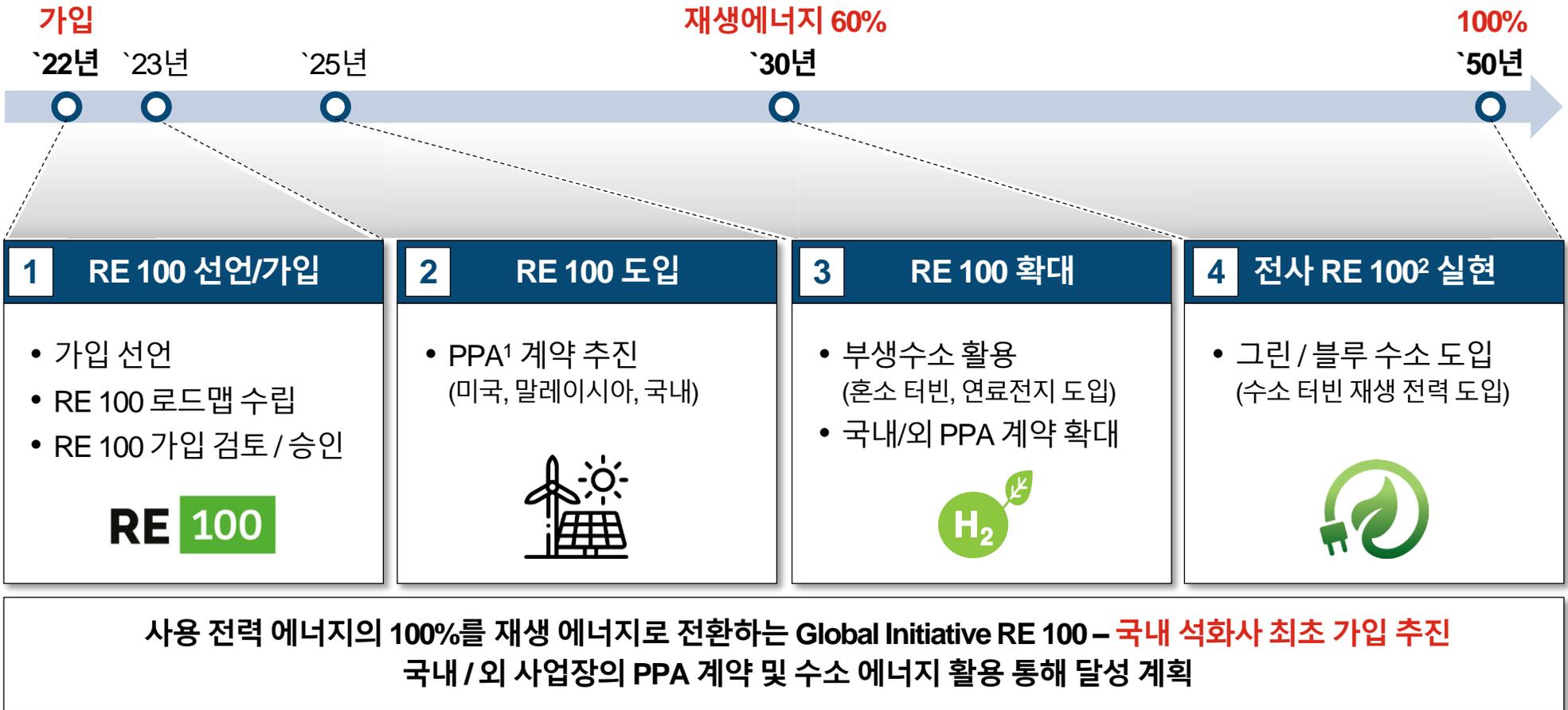
- CCUS 적용 : CO<sub>2</sub> 분리막 포집, 탄산화 공정 적용, 해외 지중 저장
- 신재생 에너지 적용 : 태양광 발전 설치,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

Note : 1. ①정부 목표 - 산업계 '18년 대비 14.5% 저감 기준, 535만톤 해당 ②당사 목표 - Peak인 '19년 680만톤 대비 25% 저감, 501만톤; 2. BAU (Business As Usual) - 저감 조치 않을 시 예상 배출량; 3. 공정 개선, 제로에너지 건물 구축 (대전, 의왕); 4. Low Carbon 원료 (LPG), 친환경 동력 연료 (LNG) 전환 등; 5. 사회적 감축 포함 (리사이클 제품 확대로 소각/매립량 등 저감 인정)

# [ESG] 탄소배출 관련 Global Initiative 가입 - RE 100



- ✓ '22년 RE 100 선언 / 가입 추진 (국내 석화사 최초),
- ✓ 국내 / 외 사업장의 PPA 계약 및 수소 에너지 활용 통해 '30년 60%, '50년 100%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)



Note : 1. PPA(Power Purchase Agreement, 전력구매계약) : 전력의 판매와 구매를 규정하는 계약, 재생에너지 판매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와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간의 전력거래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; 2. Renewable Energy 100% - '50년까지 재생에너지(태양/풍력/수력/지열)로 생산된 전력을 100% 사용 ('30년까지 60%)

# [ESG] 주주환원 정책 강화



- ✓ 3년 단위 중기 '주주환원 정책' 발표 ('22~'24년)
- ✓ 주주환원 정책 강화 (중간배당 / 자기주식 매입 실시)

## 주주환원 정책 강화



배당 성향 30%지향  
+ '22년부터 중간배당 실시, 자기주식 매입<sup>1</sup>

- 배당 성향 30% (별도 당기순이익 기준)
- 중간배당 실시<sup>2</sup> (매년 1회, 반기 기준)
- 3년간 총 3,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추진<sup>3</sup>



## 주주와 시장에 대한 신뢰 관계 구축



3년 단위 주주환원 정책 발표,  
경영진 주식 매입, 적극적 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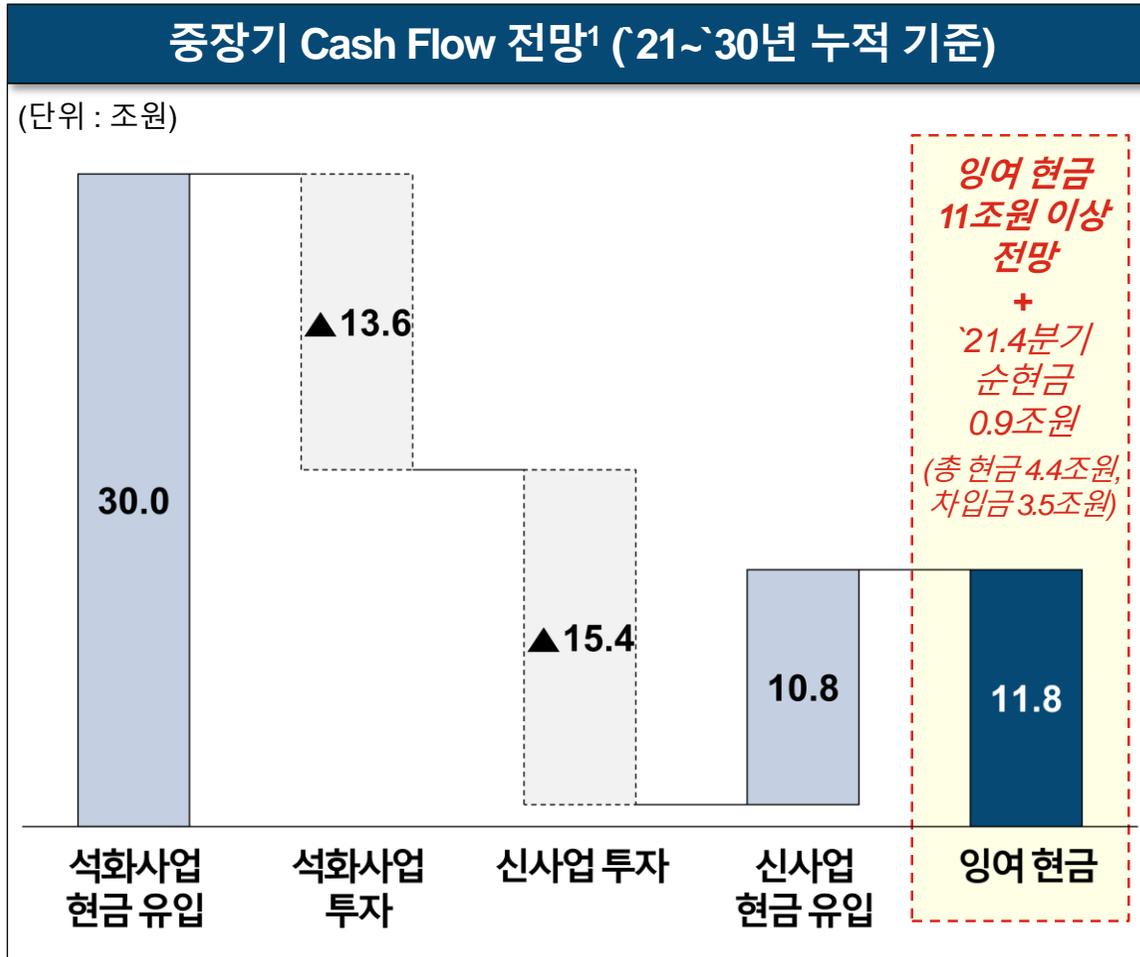
- 중기 계획 발표 통해 주주의 예측 가능성 제고 ('22~'24년 계획 발표)
- 3년간 C-Level 이상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실시<sup>4</sup>, 책임경영 강화

Note : 1. ①배당 및 주주환원 계획은 '22~'24년 기준, 3년 후 재검토 예정 ②모든 주주환원정책은 실제 시행시점에 구체적인 검토 후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임; 2. '22년 최초 도입, '22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; 3. '22년 최초 도입 ('22~'24년 진행 계획); 4. '22.3월 기준 총 7명 (대표이사 3인 및 CSO, CHO, CCO, CTO) 대상, 연중 3개월간 월 급여의 10~20% 해당 규모 주식 장내 매입 진행 계획, '22년 최초 도입 ('22.4~6월 진행 계획)

# Financial Target



✓ 석화 사업 통해 창출된 재원 활용해 신사업은 물론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및 주주가치 제고 추진



### 미래 현금 사용 계획

1

전략적 투자

- 신규 Specialty 사업 기회 모색 (바이오 소/부장, 반도체 케미칼 등)

+

2

주주 환원

- 배당 성향 30% (별도 기준) 및 자기 주식 매입 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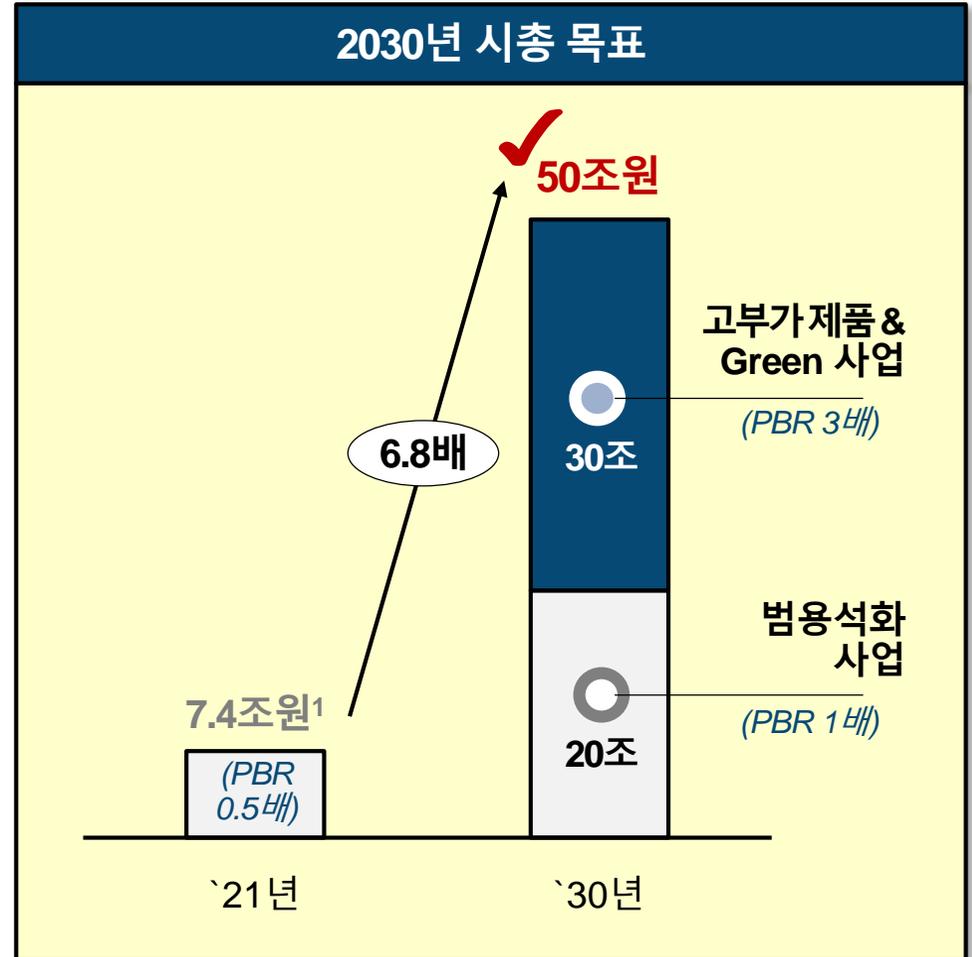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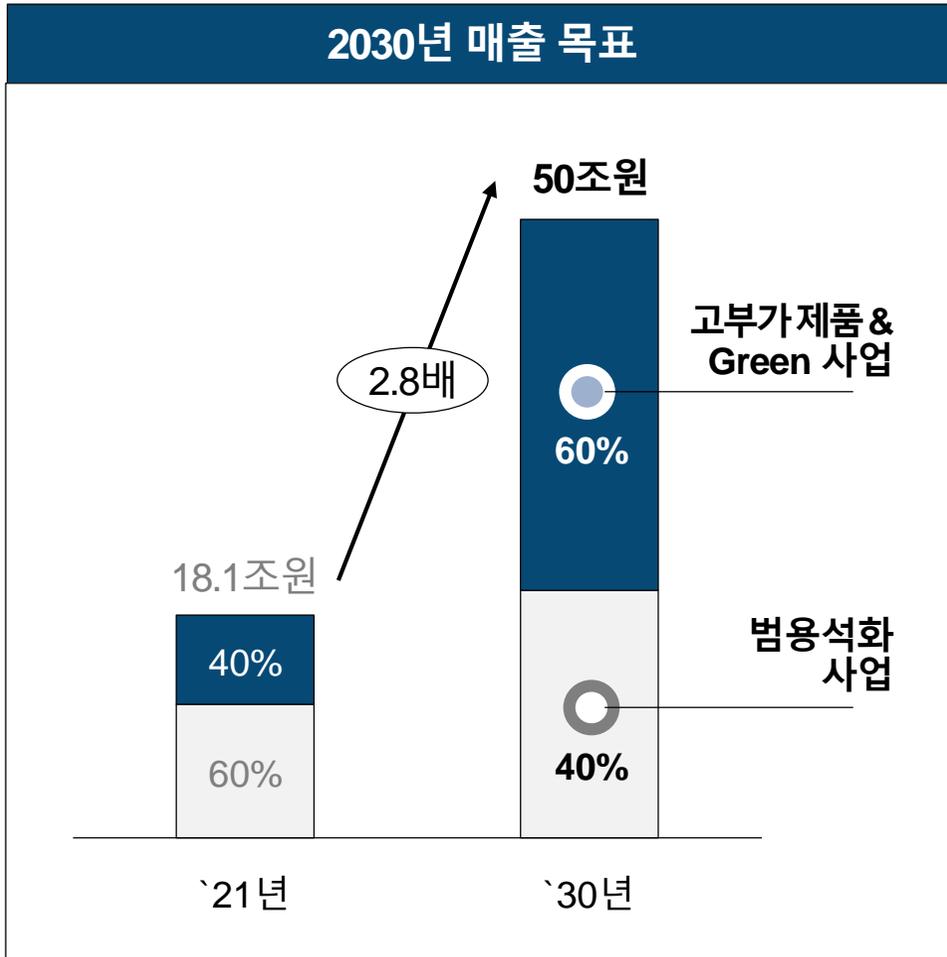
10조원 이상 잉여 현금 (예상) 통해 전략적 투자 및 주주 환원 여력 충분할 것으로 전망

Note : 1. 현재 시점에서의 장래 투자 계획 기준 추정

# Financial Target



✓ 고부가제품 및 Green 신사업 확대 및 신사업 전담 조직 통한 신속한 육성 통해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



Note : 1. '21년말 12/30 기준



## 기업가치 극대화

### Vision 2030

재무적 목표

**매출 50조원**

비재무적 목표

**탄소감축 성장**

**기존 사업 강화**

**ESG 트렌드 대응**

**신규 Specialty**

제품  
고도화

원료  
다변화

개화되는  
수소 시장  
선점

Recycle  
대응

배터리 시장  
기회

비인접  
신사업  
(Bio Healthcare,  
반도체 케미칼)

지역  
다변화

포트폴리오  
최적화

Bio-Plastic  
준비

**최적 운영 위한 조직 구조, 거버넌스**



MISSION

사랑과 신뢰를 받는  
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 
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

We enrich people's lives by providing  
Superior products and services that  
Our customers love trust

